

KOKKOS 12

DEC 2024 VOL. 272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최정권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제41대 총학 회장으로 당선된 유준하(사복 3, 오른쪽) 학우와 부회장 이예은(사복 3) 학우. 제41대 총학은 'With 총학'이라는 이름을 내 걸고 "학교와 함께, 학우와 함께, 예배를 함께"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불신가족 19명 주님을 구주로 영접

1학기 불신학우 41명 결신에 이은 큰 경사

그러나 아직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학우들의 불신가족 19명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11명의 학우들이 35명의 불신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동안 27명에게 복음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19명, 전체 대상자 35명 가운데 54.2%가 주 앞으로 돌아왔다. 6명은 복음을 거부하였으며 2명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30일 현재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8명 중 6명은 가족 간 갈등으로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리가 떨어져 있는 2명의 가족은 12월 중 만날 예정이다. 불신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학우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빛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목실이 2학기 가족 구원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모든 학우들과 교수, 직원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에 힘쓴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되었다.

1학기(5월 22일) 불신 학우를 위한 전도 캠페인을 통해 41명의 학우가 결신한 이후 계속되는 대학의 큰 경사이다. 이번 가족구원캠페인을 위해 교목실은 참여자에게 2차례 가족구원 워크숍(CCC의 노경찬, 송성은 간사 인도)으로 상황에 맞는 전도 활용법을 안내하였다. 이밖에 공동체가 참여한 가족 구원 기도회(5회)와 채플 기도 쪽지를 통해 구원 대상자의 마음 문을 열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한 학우는 할머니가 “자신은 죄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하시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할머니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는 복음을 제시한 결과 영접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을 제시 과정에서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24-2 불신가족 전도 캠페인

2024. 12. 5

전도학우	대상가족	복음의 씨 뿌림				계속 기도중 (복음제시 못함)
		복음제시	영접(%)	거부	응답기다림	
11	35	27	19(54.2%)	6	2	8



증인 (행 1:8)

김창현 목사(교목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가르침을 목격했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은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가올 2025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니성교

6 대 핵심역량 평균 8.40 점 「목표 달성」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05명에 대한 「KBU핵심역량」 진단 결과 평균 8.40 점(10점 만점)을 기록, 전년도 7.71점에 비해 0.69점 오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KBU핵심역량」은 「성서적 세계관」, 「변혁적 리더십」, 「통섭적 사고」, 「실천적 전문성」, 「희생적 봉사」, 「공동체 통합」 등 6개의 역량을 말하며 이 핵심역량 수준은 우리 대학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KBU 핵심역량의 달성 목표는 졸업예정자의 70% 이상이 6개 역량 평가에서 평균 7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실천적 전문성」은 참여자의 82.0%가 7점 이상이었고, 「성서적 세계관」과 「희생적 봉사」 80%, 「공동체 통합」 79.0%, 「변혁적 리더십」 78.5%가 7점 이상을 받아 목표를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학우들의 역량별 평균값은 「공동체 통합」이 8.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서적 세계관」, 「실천적 전문성」이 8.45점으로 뒤를 이었다. 「희생적 봉사」 8.35점, 「변혁적 리더십」 8.31점, 「통섭적 사고」 8.28점으로 이어졌다. 전체 평균 값은 8.40점 이다(도표 참조). 모든 역량의 평균 값이 8.28~8.54점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학우들의 역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역량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도 같은 평가에서는 영역별로 7.45점~8.0점이었고 전체 평균 값이 7.71점인 것을 비교하면 올해 큰 성과를 이룬 것임을 볼 수 있다.

이번 핵심역량 진단은 지난 9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24명 중 205명(91.5%)이 참여하였다. KBU 핵심역량 진단은 총 65문항 10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024 KBU 핵심역량 달성 판정

핵심역량	2024		7점 이상 비율(%)	최종 판정
	평균	표준편차		
성서적 세계관	8.45	2.30	80.0	달성
변혁적 리더십	8.31	2.23	78.5	달성
통섭적 사고	8.28	1.76	80.0	달성
실천적 전문성	8.45	1.73	82.0	달성
희생적 봉사	8.35	1.90	80.0	달성
공동체 통합	8.54	1.81	79.0	달성

판정기준_졸업예정자의 70% 이상이 '평균 7점' 이상

온라인 보수 교육기관 평가 A 등급

평생교육원, 연간 2,000명 보수 교육

우리 대학이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원장 김승욱)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2024년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다. 기본환경인 1영역은 30점 만점을, 2영역의 교육과정은 60.6점(70점 만점)으로 전체 90.6점을 받았다.

평가단은 1영역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 운영, 학습자 관리 및 콘텐츠 사용 편의성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였고 학습자의 편리성도 잘 갖췄다고 평가하였다. 2영역의 방과후 보육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수정할 것과, 통계자료 보안을 권고하였으며, 영유아보육은 국가 정책 내용 삽입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은 연간 2,0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 중이며 평가 A등급이 신규 수강생의 수업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 41 대 총학생회 회장 유준하 부회장 이예은 당선

‘학교와, 학우와 예배를 함께’하는
With 총학

지난 30일 치러진 제 41대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 유준하(사복 3) 부회장 이예은(사복3) 학우가 선출되었다. 선거는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유권자 854명 중에서 445명(52.1%)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찬성 391명(87.86%), 반대 40명(8.99%), 무효 14명(3.15%)으로 당선을 확정, 2025학년도 제 41대 총학생회를 이끌게 된다.

유준하 회장은 “저를 믿고 지지해 준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고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41대 총학은 “학교와 함께, 학우와 함께, 예배를 함께”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With 총학생회’라는 네이밍을 사용한다.

김성경 (사복) 교수 정년 퇴임식

“성서대와 25 년은 가장 보람된 시간”



김성경 (사복) 교수가 퇴임사를 하고 있다.

김성경(사복) 교수 정년 퇴임식이 27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퇴임 인사에서 “성서대와 함께 한 25년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주님의 동행 속에 최고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라서 가능했다. 이제 성서대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 제2장을 준비하겠다. 성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성서공동체의 사랑을 버팀 삼아 남은 여정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인사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인사말에서 “김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초창기에 학과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도 장애 학생 권리 증진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 헌신을 다한 교수님과 곁에서 성원을 보여준 가족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울학회 학우들이 감사를 담은 특송으로 존경을 표하였다.

김성경 교수는 교학처장과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다. 국무총리상과 서울시장상 수상 및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23일 ‘제7회 세계직장 선교대회’

최정권 총장
‘자기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 말씀



선교대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하였다.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이하 세직선, 회장 박상수 장로)가 23일 로고스홀에서 ‘제7회 세계직장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세직선은 ‘세계의 모든 직장과 직장인을 선교회와 그리스도에게로!’를 사명으로 설립된 선교단체이다.

최정권 총장은 ‘세계 직장선교, 새 길을 열어주소서’(사43:19)를 주제로 “직장선교회의 전문인과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복음 전도자의 정신이 동일하다. 선교회가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의 열정에 따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며 구원의 사명을 이뤄내는 터전이 되라”고 말씀하였다.

박상수 회장은 “세직선이 선교 거점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고 능력 있는 선교사 발굴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예배 후 선교특강, 선교 발표와 비전 선포로 진행되었다. 선교대회에는 국내외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시합격자 193명에 ‘본교 선택’ 권유 캠페인

학과 교수, 입학관리팀 주도로
인재 확보 전쟁

2025학년도 수시합격자 193명에 대해 ‘본교 선택’을 권유하는 캠페인이 각 학과와 입학관리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합격자 193명은 지원자 중 가장 높은 학습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 우리 대학이 붙잡고 싶어 하는 자원이다. 이들은 타 대학에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들이라 학교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인재 확보 전쟁인 셈이다.

각 학과의 교수들은 합격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우리 대학만의 장점과 비전을 홍보하고, 본인의 장래 진로 및 학사에 대한 궁금증 등을 나누고 있다. 학과는 합격자들의 동문인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동원 그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대학이 갖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다. 우리 공동체는 낮 채플, 일립생활관 새벽기도회, 아침 교직원 기도회 등 시간마다 ‘193명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게 해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학교 계좌에 예치금 3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확정된다. 지난해 최초 합격자로서 본교를 선택한 학생은 55%였는데 올해는 70%를 목표하고 있다.

문의 입학관리팀 02-950-5403

총장-총학생회 간담회

최정권 총장, “학우들의 사회적 역할과
신앙인의 소명 감당에 최선을”

2024학년도 총장과 총학생회 간담회가 27일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학은 시설 보수 및 학사와 신앙, 예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Q (시설 분야) 일립생활관 내 청소가 힘든 영역은 전문업체 의뢰할 수 없는가? 택배보관함 검토해 달라. 화장실 기물 보수와 악취 문제, 갈멜관 강의실 책상 수리 및 풋살장 펜스를 수리해 달라. 쓰레기통 내 잔여 음식물 처리도 문제다.

A 청소 전문업체 요구와 택배보관함 설치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 화장실 문제와 강의실 책상 수리 외 기타 개보수 등의 요구에 시설팀이 신속히 파악 후 조치할 것이다. 식음료 분리배출은 총학에서 캠페인 동참을 이뤄주면 좋겠다. 예배 장소의 시설 유지 관리에도 적극 임하겠다.

Q (학사 및 신앙 분야) 예체능 강좌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문화가 담긴 채플에 관심이 높는데 횡수 확장과 학과별 주관 예배도 살펴달라.

A 강좌 증설 요청에 감사하며 새로운 과목과 강사 발굴을 고민하고 있다. 학우들의 문화적 채플 요구에 공감하며 적극 확대 및 학과별 주관 예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Q (예산 및 기타) 타대학과 비교해 약한 총학 예산 증액과 학회실 동아리실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학교 이미지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A 학교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지원하였는데 검토해 보겠다. 동아리 지원은 사업이 아니고 다과 지원 정도라며 이해해 달라. 공간 창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하여 갈멜관 증축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

최정권 총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총학 임원진이 학교를 무척 사랑하는 걸 보며 기쁘다. 학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학우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사회적 역할과 신앙인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훌륭한 총학과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진로 안개 속

취업 걱정 적던 영보, 간호도 올상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도로 도와야 할 때”

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진로가 어느 때보다 안개 속이다. 올해 졸업예정자 214명은 취업, 진학, 입대 등 진로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취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내수 부진 등이 겹쳐 힘든 상황. 취업 걱정이 비교적 적었던 영유아보육학과, 간호학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졸업예정자들의 진로를 학과 별로 긴급 점검해 본다.

성서학과(졸업예정자 60명) 대학원 진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예정자 중 33명이 대학원 진학(본교 14명)을 희망하고 있다. 교회 사역 및 취업 희망 23명, 입대 1명, 기타 7명(초과 학기자 포함)이다.

사회복지학과(41명) 학우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내년 1월 11일) 합격 이후 취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명이 취업하였으며, 진로는 종합 및 노인복지관 영역에 20명, 의료 정신건강 분야 4명, 공무원, 공단과 NGO 5명, 아동 청소년 영역 2명, 장애인 시설과 진학 1명, 타 분야 8명이 각각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영유아보육학과(32명)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수가 줄고, 현직 교사의 이동도 적어 채용도 감소했다. 지금까지 취업이 결정된 학우가 3명, 지원, 면접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우가 26명, 기타가 3명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32명) IT업계가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라 경력없는 우리 졸업자에게는 불리한 상황. 내년에는 수익성이 검증된 스타트업체 중심으로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4명이 취업 확정되었고, 7명은 대학원 진학으로 진로를 잡았다. 교수들은 동문과 연계하여 취업 틈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간호학과(49명) 병원들이 코로나, 의정 갈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 문이 거의 닫혔던 상황에서 10월부터 취업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취업이 결정된 학우는 10명이며 면접을 끝낸 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1월 24일의 간호사 국가고시도 졸업예정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지에 취창업센터장은 “예년 같으면 12월에는 30~35%의 학우들이 취업, 진학 등 진로가 결정되었는데 올해는 불과 15~17%만이 정해진 상태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도로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학우들은 취업 시장에서 ‘우수 인재’로 인정받고 있어 문만 열리면 기회가 올 것이고 학과의 교수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홍콩중앙교회, 1만 달러 후원 주님의 대학 지원에 감사

홍콩중앙교회(담임 정승대 목사)가 우리 대학에 1,400만원(1만 달러)을 후원해 주었다. 정승대 목사는 “성서대학이 성서의 본질을 고수하며 복음전도자 양성의 한길을 묵묵히 달려왔다. 성도들과 함께 귀한 대학을 섬기도록 마음을 움직여 준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학우들의 식비 지원으로 전액 사용된다.

1995년 설립된 홍콩중앙교회는 양육, 예배, 선교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모토로 사역 중이다.

김성경 교수, 5백만 원 후원

김성경 교수(사복)가 정년 퇴임을 맞으며 학교에 5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 교수는 “성서대와 함께한 2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학우들의 LOVE & ACTS 장학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4 학년 주관 예배 신앙의 성숙함 보여

문채린 학우
“서로를 품는 형제자매가 되자”



문채린(성서) 학우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우들이 주관하는 2학기 예배가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사회와 기도 설교 간증 전 과정을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담당하였다.

문채린 학우가 ‘도리어 사랑으로써(몬1:4~22)’로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줄 것을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예수와 만나 유익해졌다며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우리는 나와 잘 안 맞다고 상대를 미워하며 용서를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왜 잊는가? 미워한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하고 품는 형제자매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간증에서 안은서(간호) 학우는 “선교사의 꿈을 갖고 간호학과에 진학하였다. 적성도 맞고 3년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취업 상황에 압박을 느끼며 나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4년간 지켜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중한 동역자와 교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생명과 영혼 치유의 간호사로 성장하겠다”고 간증하였다.

간증 및 설교자 명단과 설교제목은 다음과 같다.

1주차	간증자	설교자	‘설교제목’
4일(월)	▲ 박민희B(영보)	▲ 이다니엘(성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5일(화)	▲ 박민희A(영보)	▲ 손수민(성서)	‘우리의 해방일지’
6일(수)	▲ 최성준(컴소)	▲ 정예은(성서)	‘사랑의 시작’
7일(목)	▲ 조효진(영보)	▲ 권 샘(성서)	‘선을 따라 굶는 삶’
8일(금)	▲ 박주경(영보)	▲ 팍서연(성서)	‘Still love: 여전한 사랑’
2주차	간증자	설교자	‘설교제목’
11일(월)	▲ 안은서(간호)	▲ 이수원(성서)	‘그물 찢는 때에’
12일(화)	▲ 이하경(간호)	▲ 김민재(성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13일(수)	▲ 송영서(간호)	▲ 이하은(성서)	‘선 용서, 후 사랑’
14일(목)	▲ 윤다연(간호)	▲ 문채린(성서)	‘도리어 사랑으로써’
15일(금)	▲ 윤정의(간호)	▲ 양승일(성서)	‘팥 없는 팥빵, 부활 없는 신앙’

2 학기 BRC 연합 종강예배

김정원 교수 설교
“말씀은 내면 안에 활력을 일으켜”



김정원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학기 성서학과 BRC 연합 종강예배가 29일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원 교수가 ‘살아있는 말씀’(히4:12)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의 내면 안에 활력을 일으킨다. 지난 1년간 말씀 읽기로 다져진 거룩한 마음속 근육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도록 힘써 읽고 묵상하는 삶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최정권 총장은 “처음 예수님 믿고 중생한 후 읽은 성경이 제일 달았다. 담임목사 때 강해 설교, 이민 목회 시절 2년간 영어 성경을 완독했던 기억도 달콤했다. 성경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끝까지 곁에 두고 읽는 여러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증에 나선 이찬호 학우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도우미로 헌신한 12명은 다음과 같다. *이주찬 외 모두 성서학과.

- ▲ A반 김정원 교수: 이다니엘(4), 김택일(4), 서효경(3), 조은수(4), 지성은(2)
- ▲ B반 강규성 교수: 이하은(4), 김영은(4), 손선돌(4), 이서현(3), 이주찬(컴소4), 임주만(3), 최인성(2)

「제13회 간호학술제」 논문과 보건교육 포스터 풍성

최우수 논문
‘대학생의 디지털 리더러시…’

간호학과 「제 13회 간호학술제」가 14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3학년 학생들이 팀(5~7명)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고 2학년 학우들은 로비에 14편의 보건교육 포스터를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학술제의 최우수 논문은 정윤하 학우팀이 연구한 ‘대학생의 디지털 리더러시, 창의적 자기효능감, 인지적 유연성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지도 교수, 고미숙)이 영광을 얻었다. 장아희 학우팀(최은희 교수)과 김한빛 학우팀(장인순 교수)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 팀은 20만 원, 우수팀 15만 원, 장려상 10만 원이 수여되었다. 보건교육 포스터는 박은성 학우팀(4명)의 ‘건설 현장 노동자 대상 보건안전교육’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노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5편은 장려상을 받았다.

학술제는 8개 팀이 참가하였고 참가자와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논문 발표자)

대학생의 디지털 리더러시, 창의적 자기효능감, 인지적 유연성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윤하* 김수민, 김은민, 박가람, 박서영, 배승아_지도교수 고미숙)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영적 안녕,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아희* 김예지, 박은혜, 이윤경, 이재은, 표서이_지도교수 최은희)

여자 간호대학생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신념모형을 중심으로

(김한빛* 백수빈, 윤은진, 이채은, 조영서A, 최신혜_지도교수 장인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백서영* 강수형, 김예은A, 김지수, 이수진_지도교수 김소희)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 자본, 전공만족도, 그릿이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하경* 김나영, 김나현, 김채연, 이송아, 최예인_지도교수 김주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면의 질, 신체활동이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유지은* 고은, 김소울, 성희은, 이예은, 장지윤_지도교수 안현미)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 자존감안정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다혜* 김시은, 김윤서, 연다현, 정영주, 조영서B, 하지민_지도교수 홍소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회복탄력성, 셀프리더십이 소진(burn out)에 미치는 영향

(이수연* 김예은B, 박선주, 이세은, 이하영, 전하리_지도교수 이소정)

간호학과 「제2회 홈커밍데이」

성서대 간호학과
동문의 자긍심 가져 달라

간호학과 「제2회 홈커밍데이」가 14일 저녁 일립관 405호에서 예배와 축하 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격려사에서 “학교를 통해 배웠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간호 전문 지식을 현장 안에서 잘 실천하고 성서대 간호학과 동문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져달라”고 말하였다. 교목실 김창현 목사는 “여러분은 학교에서 복음전도자로 세워졌다며 정체성의 기억과 증인이 된 자의 삶을 기원”하였다.

안현미 학과장의 환영사와 동문 소개, 축하영상과 후배들의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성서대 교직원 ‘문화의 날’ 55명 참석

“공동체 단합의 계기 되길”

26일, 교직원과 함께하는 성서대 교직원 ‘문화의 날’이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과 보직교수 및 교직원 55명은 오후 5시 30분 학생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 이후 노원 롯데시네마로 이동, 영화 글래디에이터 2를 감상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우리 교수와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섬기는 주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

총장의 기도-3.4.5



하나님!
총장인 저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 대학은 학생들에게 3가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카페에 커피와 빵이 계속 맛있고 우리 식당이 대한민국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줄 양질의 밥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식당 대가자의 줄까지 더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총장인 저에게 식수(食數)가 전혀 문제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강의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고 전문인으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지적인 밥이 되게 하소서. 그 밥을 먹고 자란 학생들이 어디서나 복음전도자와 전문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다른 일반 대학에 없는 저희 대학의 지성소인 채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간증, 찬양이 살아있는 영적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떡이 되어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장래 가족이 모두 다 천국 잔치에서 만나게 해 주세요. 그 날 총장을 지낸 제게 면류관 하나를 더 주세요.

하나님!
저희 대학은 4개의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생활관에서 열리는 이른 아침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시고 매일 아침 교직원 경건회에 올려지는 기도 쪽지를 기억, 온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낮 12시 채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세요. 마지못해 온 학생들의 마음을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학교의 모든 재학생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소서. 하루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업의 길을 걷는 우리 대학원 채플에도 큰 복을 주세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는 그들의 성과 학업에 주님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저희 대학은 6천 평의 크지 않은 대지에 5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그 안에서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과 육을 굳건히 지켜 주세요. 복음관은 복음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고, 갈멜관은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부어 주시며, 모리아관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일립관은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학생들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밀알관은 한 알의 밀이 죽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추수 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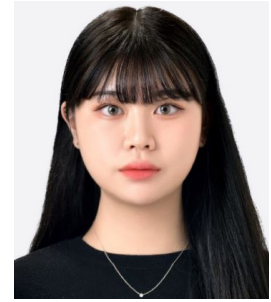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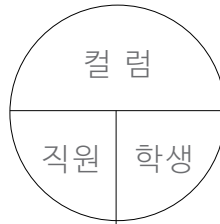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장의
편지



최지은 팀장(도서관)



장서영 학우(간호2)

와글와글 독서, 다독다독 독서

도서관에서는 2015년부터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클럽, 독서 멘토링 등을 약 10년간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독서클럽 297명, 독서 멘토링 373명으로 총 670명이 활동하였고, 2024년 현재에도 많은 학생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독서클럽은 독서 전문가 김 킷의 독서법인 일명 3R 독서법을 기반으로 읽기(Read), 말하기(Relate), 쓰기(Writing)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팀별 매월 1권의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작성하고 팀 토론을 갖는다. 독서 멘토링은 책과 친해지고 읽기의 두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생날 것 읽기 프로그램이다. 한 권의 책을 2~3주 동안 매일 깊이 있게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면서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알짜배기 독서프로그램이다.

사실 독서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글쓰기를 돕기 위해 시작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글쓰기보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도서관과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읽기와 쓰기는 한 몸으로 잘 쓰기 위해 읽고 또 잘 읽기 위해 쓰라는 말이 있다. 학습에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다. 제대로 읽고 생각을 자기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필수 덕목이 되었다.

10여 년 동안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이 꾸준한 독서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즐겨워하고 스스로없이 다가와 삶을 나누고, 책 읽기가 조금은 편안해졌다며 웃음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이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꼭 가을에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학우들이 읽고 싶은 그 때가 독서의 계절이다. 한 명의 학생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성서대학교에는 - 아직은 책 읽기가 어렵지만 친해지기를 원하는 -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언제나 함께 독서할 도서관이 있다.

사랑 그 자체이신

CCM 가수 김복유가 부르는 찬양,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의 가사에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기 전,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강렬한 선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은 종종 감정, 자기만족,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과 연관해 정의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나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 때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하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조건적 개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이 내 행복이나 나의 필요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사랑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며 지속성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러한 속성에 따라 사랑을 행하였던 때가 물론 있었다.

사랑을 조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되는 세상 속에서, 앞서 언급한 찬양은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잘 못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임을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네 장점 단점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널 사랑했다'라는 가사.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사랑의 '자격' 따위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자격을 증명하거나 기준을 맞추어야 사랑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부터 이미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신다.

가짜 사랑의 만연으로 더욱 차가워지는 겨울, 이 글을 읽는 당신만은 사랑 자체인 그분의 진짜 사랑을 온전히 느껴가면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길 소망해 본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뜨겁고 아름다운 겨울을 보내는 축복이 되기를...!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감사가 따라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에 감사가 따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늘 밝은 미소로 섬김의 자리를 지켜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얼마 전 한 교우님께서 봉사의 일을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수락하시며 잊지 못할 감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제가 이 일을 감당해도 될까요?”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는데, 불러 주심에 감사하다니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따라 다니는 분들을 관찰 해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에게 ‘과분함’을 고백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받을’ 은혜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자족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thank’가 기억하디 ‘think’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 감사의 힘이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감사의 고백이 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구석 구석마다 이처럼 사랑과 열정으로 교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십여 년이 지나도록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섬기는 교회학교 봉사자, 아름다운 하모니와 악기로 예배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찬양 봉사자, 사랑방과 전도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봉사자, 매일 새벽 강단의 불을 밝히는 섬김과 꽃꽂이, 주방, 시설 등 곳곳의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을 감당해 주고 있는 분들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감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25

흰 눈 공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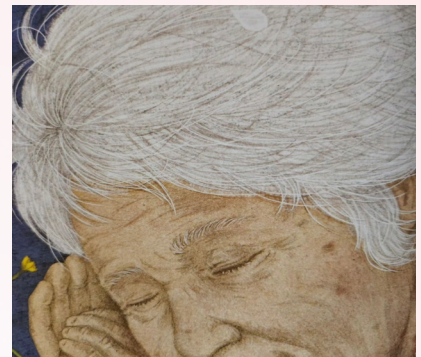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 가지에 앉고
그래도 남은 눈은
벚나무 가지에 앉는다

거기에 다 못 앉으면
조팝나무 가지에 앉고
그래도 남은 눈은
이팝나무 가지에 앉는다

거기에 또 다 못 앉으면
취뽕나무 울타리나
산딸나무 가지에 앉고

거기에 다 못 앉으면
아까시나무 가지에 앉다가
그래도 남은 눈은
찔레나무 가지에 앉는다

앉다가
앉다가
더 앉을 곳이 없는 눈은
할머니가 꽃나무 가지인 줄만 알고
성긴 머리 위에
가만가만 앉는다



<https://blog.naver.com/cholong0987/223231032182>

<흰 눈>에는 눈의 여정이 담겨 있다.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 가지에 앉고, 그래도 남은 눈은 벚나무 가지에 앉는다. 벚나무 가지에 다 못 앉으면 조팝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이팝나무 가지에도 앉는다. 이팝나무 가지에 다 못 앉으면 취뽕나무 울타리나 산딸나무 가지에도 앉는다. 그러다가 아까시나무 가지에도 앉고, 찔레나무 가지에도 앉는다. 앉다가 앉다가 더 앉을 곳이 없으면 할머니가 꽃나무 가지인 줄 알고 할머니의 성긴 머리 위에 가만가만 내려앉는다.

할머니 성긴 머리 위에 내려앉은 흰 눈,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롭다. 매화나무로 시작하여 찔레나무를 지나 할머니 성긴 머리 위로 가만가만 내려앉는 눈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니 어느새 우리의 성긴 머리에도 하얀 세월이 내려앉아 있다.

공광규 시인의 시 <흰 눈>은 주리 작가의 그림을 만나 시 그림책 <흰 눈>으로 출판되었다. 그림책을 기획한 바우솔 출판사는 어린이들이 그림책 <흰 눈>을 읽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이 가져오는 아름다움, 더 나아가 세월의 흐름을 이해하며 어른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내리는 눈과 더불어 시 그림책 <흰 눈>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병든 아이 (The Sick Child) 1894 년

Edvard Munch (Norway, 1863.12.12~1944.1.23)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51호



지난 9월 에드바르 뭉크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전시회 끝 무렵이라 그런지 관람객이 많아 기대했던 것만큼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나온 작품이 바로 '병든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그 문제의 화제작은 아닙니다. 뭉크는 같은 제목의 그림을 1886년 그렸고 이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특별전 사회에서 본 '병든 아이'와 서울에서 본 그림의 차이는 위치와 색이었습니다. 흑백으로 그린 서울 그림의 아이는 워싱턴에서 봤던 색채 있는 그림의 아이와 반대편 위치에 있었습니다.

뭉크는 일생 내내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

렸는데 한 살 많은 누이 소피(Sophie)의 죽음이 그만큼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소피는 15살의 나이에 죽고 뭉크 자신도 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그림들은 어둡고 정적이며 절망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본 그림이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건 여자아이의 발 근처에 있는 잔 속의 물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그림에서 발견한 건 저였습니다.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던 병든 아들의 침상에 아들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졸던 엄마도 함께...

그런 날들이 다 지나고... 지금은 잔 속에 남아 있는 물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하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보육유공자 표창 및 센터장상 수상

31일, 대학어린이집의 권효진, 노민지 교사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년 비구조적 놀이감으로 놀이하자!' 공모전에서 '카페 놀이로 센터장상을 수상하였다. 권 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동료 교직원들도 감사하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는 보육인 1,200여 명이 참석,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영유아 보육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밀알반 정미옥 교사]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동네 돌보미 위촉식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고립 가구 발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고립사의 증가로 이웃에게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착한 탐경 캠페인'으로 지역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기 등을 실천해 왔다.

우리 복지관의 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복지관을 미리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맞춰 주변인과 관계망 대응 시스템 구축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고한 봉사자들도 진전된 상황에 보람을 갖고 고립 가구 발굴에 더욱 협력하며 열정을 보여주었다.

[김은미 사회복지사]

꿈빛 가족들이 공굴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가족 운동회

2일, 한국성서대학교 잔디밭에서 꿈빛 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와 게임 등을 준비하였다. 줄다리기, 공굴리기, 색깔판 뒤집기, 달리기, 메달 수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모두는 신명이 난 웃음과 함성을 터트리며 즐겁게 임하였다.

가족 운동회를 통해 꿈빛 가족에게는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고 심신 단련과 행복을 확인하는 값진 자리가 됐다. 참여 가족들은 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운동회가 꿈빛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

[초롱반 오지혜 교사]

은퇴식을 마친 장로들과 권사들.

성서대학교교회



추수 감사주일

17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는 축복의 날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대해 함께 감격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이 됐다.

오랜 시간 장로와 권사로 섬김과 수고를 감당하고 은퇴하는 김동선, 박세건 장로와 고명옥, 김민자, 김순자, 김향순 권사가 명예로운 은퇴식을 가졌다. 은퇴 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로 함께하실 장로님과 권사님께 모든 성도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해 주었다.

[박효민 목사]

어린이대공원 야외에서 진행된 가족참여 행사의 장면



상계백병원

가족 참여 행사

16일,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가족 참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가을을 즐기며 다양한 동물 관람하기,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깜짝 퀴즈 맞추기 등으로 우애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 자리도 가졌다.

부모들은 다른 가족과 점심을 나누면서 자녀 양육 정보와 교육에 관련된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가족과 동물을 구경하고 친구와 시간을 보낸 가족 행사에 행복해 했으며 학부모들도 가을 정취 아래 비슷한 연령대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관계 향상까지 진전되는 자리가 됐다.

[맑은반 윤서희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성교육의 중요성이 진행 중이다.



노원목이종합지원센터

'당황하지 마세요'

22일, 영유아 부모를 위한 '당황하지 마세요' 성교육을 상계 6,7동 도담도담나눔터에서 진행하였다. 영유아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과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의 개입과 지도 방법을 살펴 보았다.

또한 성교육에 대해 질문하기 토너먼트 시간을 가지며 영유아 시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행동 대응 방법, 부모의 역할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질문 시간 후, 영유아 자녀 성교육에 도움되는 다양한 그림책과 영상 자료도 시청하였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가을에 맞는 실내캠핑놀이가 원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상계동어린이집

실내 '캠핑놀이'

만 4세반을 중심으로 유아반 캠핑 놀이가 진행되었다. 가을 관련 놀이로 캠핑에 관심 보인 유아들을 위한 체험을 준비하였다. 유아들은 캠핑하면 생각하는 놀이를 친구들과 꿈으며 계절의 특징과 장점을 접목해 경험하였다.

마쉬멜로우 구워 먹기, 소세지 꼬치 만들기, 텐트 안에서 보드 게임하기, 랜턴을 이용한 놀이와 군고구마 먹기 등이다. 운치 있는 가을날을 재현한 곳에서 소소한 이야기와 유의미한 놀이가 되었다. 캠핑장 구성 때 유아들은 주변 물건을 활용해가며 창의적 상상 놀이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김장놀이를 하고 있는 영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 김장하는 날

19일, '늘사랑 김장하는 날' 행사를 가졌다. 평소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김치 거부감 없이 적극 참여해 주었다.

영아들은 트랙터와 김장에 필요한 음식모형에 흥미를 갖고 놀이를 즐겼다. 유아들은 모형 배추에 아무진 손으로 양념도 버무리고 토래와 상상 놀이를 즐겼고 교사들은 김장하는 이유와 채소들의 영양소에 대해 안내하였다. 여기에 놀이 모델링이 되어 주자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김장 놀이를 통해 다양한 채소와 친해지고 전통 음식까지도 알아보는 뜻깊은 날이 되었다.

[늘사랑반 윤영숙 교사]

참가자들이 원데이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



말게우리통합상담소

원예 원데이 프로그램

14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예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불안 및 무력감과 수치심으로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인원과 안전한 관계 속에 사회적 연결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취향대로 꽃을 꾸미며 고민하고, 결과물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피해의 기억을 떨치고 정서 환기, 심리 회복을 갖도록 하였다. 내외부 강사와의 편안한 소통, 안전한 공간에서 원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에 참가자들은 기쁨을 드러냈다. 앞으로 다회기 원예 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갈 예정이다. [김수진]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심재경(재미동포)	30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2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교회(반세호 목사)	1866만원(운영)	김명애(동덕여자대학교 총장)	100만원(운영)
송희경(외대교수)	700만원(캡소)	김미경(충현교회)	100만원(운영)
김성경(교수)	510만원(장학)	반중원(이사)	100만원(운영)
이철희(이사)	50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경성교회(박종걸)	3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수원교회	30구좌 박수정
1구좌 김명희 남궁화 박수진 박윤복 박창대 박형택 백연주 서진희 신지은 양주향 이상용 이선정 이혜란 임은희 장동명 천난희	2구좌 남현수 교직원 및 가족 2구좌 정순애 3구좌 양희정 정지용 15구좌 이한영	2구좌 정유광 중앙성서교회 10구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0구좌 퇴계원제일교회	단체 및 기관 10구좌 만나교회 20구좌 전하석
2구좌 국소영 노정현 박정연 신경안 이영애 정영용	15구좌 이한영	10구좌 퇴계원제일교회	
5구좌 김진경	10구좌 삼일성서교회	1구좌 권창석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수원교회	30구좌 박수정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은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승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기영 김도훈 김동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슬기 김승훈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승환 김일중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종환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한나 노 만 류유현 류하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현 서상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광재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민구 송바을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민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염미자 염보영 연현숙 오재엽 옹이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필 이석호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재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렬 이현섭 이현지 이혜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송희 조영희 조유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성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3만원 흥진옥 홍혜주 황인숙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석환 김세련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안연선 우중엽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상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차주엽 최소린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송인성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서명주 송복순 신상훈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윤아 이정근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6만원 정동주 7만원 인성은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차선 성서말알선교회	11만원 유선미 22만원 성낙표 25만원 선경안 30만원 최문정 50만원 신윤심 100만원 이례장학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자호 함은애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임중우 전희운 최규규 5만원 권오길 박선희 손미연 안중현 이재현 정주화 6만원 황미숙 10만원 김소레 25만원 남현수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박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순중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환 김지호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모서 박연지 박주안 방우형 서광철 양승원 오시다고조 유성준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정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최미영 최희수 최유민 하늘사랑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민경은 박은주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남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4만원 김덕원 5만원 구광연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대구 김현광 김현옥 김형미 문우열 박성환 박태용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서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숙 조현진

기부자 명단					
11만원	최지은	1만8천원	이대현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권은정 권정화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은미 김일선A 김일선B 김지윤 김진철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	
12만원	김덕현 김웅기	2만7천원	최승혁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3만6천원	김민자 김인자 김준환 박 선 박선하 반해빈 반혜성 유종엽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4만5천원	김순옥 노봉환 박은경 유희창 장혜린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0만원	안정선 이한영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5만4천원	강유진 김현석 반세호 선종인 송재철 최선희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성교회	
25만원	정휘진 한영수	7만2천원	김유미	중앙성서교회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15만원 이혜선	
35만원	최선희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홍희 박세건 박은유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45만원	강우경 강 진	1866만원	성서대학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중민 안지선	
100만원	반종원	2만원	금촌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윤은정	
500만원	이철희	3만원	푸른동산교회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510만원	김성경	5만원	동두천성서성교회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700만원	송희경	10만원	달빛교회 삼일성서교회	호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부설기관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일 반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에 김효진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우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성민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짱/동신지원 /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스즈 5만원 다드림교회/본도시락 증계점 /사랑성교회/삼일교회 /예일에드컬/천성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정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주)소원기건 /(주)이레E&C이레디자인 30만원 한민제일교회 200만원 한국장학재단 300만원 경성교회
2만원	진양희 허성보	1만원	김정희	1만원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승이 안미희 장나혜	1만원	한지화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2만원	임운창 어린양교회		
10만원	권경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7만원	이정선		
14만원	김선화	1만원	심미영 유현석		
15만원	김화영 자주나	2만원	김의남 박문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5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근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에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천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2천7백원 박용숙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소계(20241021~20241120)				104,692,740	
누계(20240301~20241120)				688,170,506	

한국성서대학교 1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47,300,000원)					
심건식 장로, 심재경 권사 (재미교포)	30,000,000원	송희경 (초빙 교수)	7,000,000원	이철희 (법인 이사)	5,000,000원
경성교회	3,000,000원	김명애 총장 (일반)	1,000,000원	성서밀알선교회 (동문)	1,000,000원
류종주 (일반)	100,000원	신지수 (교직원)	100,000원	이은광 (동문)	1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48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5,760,000원)					
45구좌	강우정 (법인 이사장)	/	3구좌	황미숙 (재학생)	
일시납 누계(3.1~11.22) 230,376,061원 약정자 누계 (3.1~11.22) 181구좌 21,720,000원					

